

오산시

내삼미 필봉산신제

·
·
·



내삼미 필봉산신제

1. 전승지

오산시 내삼미동

2. 유래 및 예설

1) 유래

산신제는 원시시대 애니미즘(Ammism)의 사상에서 출발한 자연숭배의 유형으로 산을 지키는 산신에 대하여 제사하는 소위 산제이다.

우리 민족이

산신과 관계를 맺은 기록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찾아볼 수 있다. 백제에서는 「선사신지급산곡지신」(先祀神祇及山谷之神)으로 구당서의 기록이 있고 당회요에 따르면 신라는 「신라호제산신」(新

羅好祭山神)으로 「삼산오악신」(三山五岳神)에祭祀하였다. 이후 고려때 국조보감에 여자 무당으로 하여금 적덕산, 백악, 송악, 목덕산에 제사를 올린 기록이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4악 10개산에 단을 쌓고 중춘, 중추 2회에 걸쳐 국태민안과 삼재소화(초재, 수재, 병재)의 제사를 하였다고 의하고 있다.

한편 민간에서는 각 주읍의 진산에 산신당을 짓고 춘추 또는 정초에 제사하는 풍속이 있어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무병을 기원하였다. 이 경우 대개는 마을 단위의 당산제, 산



제사와 같은 이름으로 행하여져 왔는데 제의 추렴, 제관의 선정 등 마을 공동의 부락제의 성격이 아주 강하였다. 조선총독부 간행 「부락제」에 의하면 일제시 전국부락제 522개중 산신제류는 176개에 이르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과학 문명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그 대부분이 소멸되거나 유명무실한 형편으로 연1회의 명맥을 유지하는 곳마저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 되었다.

내삼미는 원래 조선시대 정조대왕(1776~1800)때 이 부근의 松美(소나무골), 竹美(대나무, 대랑골) 오미(오동나무골)을 합쳐 三美라는 지명 유래를 가지고 있는 바 산신제가 민속으로 봉행되어온 곳은 필봉산 아래에 위치한 송곡촌으로 현 경기도 오산시 신장동 내삼미리(속칭 내삼미)이다. 이곳은 마을 전체를 옥쇄형으로 싸고 주봉인 필봉산(220m)이 동북방향에 위치하고 남서방향에 넓은 들이 펼쳐져 주민 모두가 농업에 의존하는 전통적 마을을 이루어왔다. 이 마을이 정착된 시기는 대략 1500년 경으로 비슷한 시기에 산신제가 시작된 것으로 구전되고 있다.

이 마을은 위치상 과거 경순가도(서울~순천)를 가까이 끼고 통행이 빈번했던 곳으로 외래인의 범접이 잦았을 것으로 사려되는 바 동리에 발생하는 횡액을 방지하려는 데서 산제의 보우를 비는 뜻으로 필봉의 산 기슭에 산신제를 봉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우기 이곳 주민의 생업이 농업에 의존해 온 터라 마을 공동의 부락제를 통하여 주민들의 협동이 절실한 때문에 산신제는 소위 부락제로서 주민의 결속과 협동의 산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듯 싶다.

당시 경순가도에서 멀지 않은 이곳에는 이방인들의 출입이 잦았던 바 특히 야밤에 마

을 안으로 당(堂)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은 지신(地神=山神)을 노하게 하여 마을에 횡액을 가져 오는데 마을의 어린이를 차례로 죽게했다 하여 마을 공동의 산신제가 유래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의 이곳 산신제는 전통적인 농악과 함께 마을을 넘어 오는 당에서 굿판을 중심으로 무속의 유형으로 시작되어 전승되어 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는 정조대왕이 부왕(사도세자)의 묘를 용릉(陵 현 화성군 대안읍)을 축성함에 따라 이곳이 현릉원의 능원에 속하게 됨으로써(직선거리 약 3km)이 안에 속한 이 마을은 자연 당이 헐리게 되었으며, 무속까지 금지되어 산신제는 크게 위축 당하게 되었다. 특히 능원 성역 안에서는 음주가무를 금하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여 농악과 함께 춤과 노래로 흥청거리며 떠들썩하게 노는 굿과는 달리 단지 몇사람의 엄선된 제관만이 참여한 가운데 구월 그믐밤을 기하여 조용히 제사를 지내는 유교식의 동제로 변모케 되었다.

따라서 이곳 산신제의 경우는 유교식의 홀기(笏記: 제사절차)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되면서도 제물 추렴을 위해 벌리는 농악의 주문이나 산신제 끝에 올리는 부정소지 등에 무속적인 모습이 함께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변모되고 쇠퇴된 산신제는 그나마 근대화에 밀려 그 원형이 크게 축소되고 굿기야 일제시대 말부터는 그 명맥마저 끊긴 상태여서 향수어린 촌로들의 구전으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뿐이었던 바, 필자가 1989년 제육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오산시 작품으로 발굴하여 본 작품을 공연함으로써 다시금 전승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산신제의 구성 및 줄거리

원래 마을 산신제가 행하여지기까지는 제물의 추렴 산신제사와 제물봉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행사로 이어지는데 이는 1년을 단위로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정초의 농악과 함께 제물추렴으로 시작되어 산제사, 제물의 분배까지 마을 공동의 일관된 행사가 되고 있다. 또한 산신제만 하더라도 원래 이곳 필봉의 산신대제가 있고(山地之神), 웃우물의 용천수신, 찬우물의 양포천수신, 사장재고개의 건위수호대장군신에 대한 제사 모두를 포함하여 4곳에 제사를 각기 지냄으로써 산신제가 끝나게 된다. 한편 산신제는 매년 9월 그믐밤 자정에 행하여 진다.

본 연구에서 실제의 내용은 제물추렴을 위한 두레농악을 필두로 한 준비과정, 산신대제의 제례식순 및 축문의 고찰로 대신하고자 한다.

1) 산신제의 준비

이곳 산신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모두 날것인 생음식으로 쓰였다. 과거에는 매년 숫소 한마리를 잡아서 4각을 떼어(다리 1개, 고리, 내장, 갈비뼈) 제물로 바쳤으며, 기타 생수, 채소, 과일로 제상을 차렸다.

특히 제관의 선정은 대단히 중요하여 상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정을 타지 아니한 길인을 뽑아 제사를 맡겼으며 아울러 참례하는 제집사 또한 그러하였으며, 제관으로 뽑힌 사람의 집에는 금줄을 치고 외출을 금하였다.

한편 9월 그믐날 아침부터는 이 마을의 당(현재는 없음. 사장재 고개)을 넘어오는 길목에 금줄을 쳐서 외래인의 범접을 막고, 산신제를 올리는 신단(현재는 없음)과 웃우물, 찬우물, 사장재에 각기 금줄로서 신성하게

정제하였다.

산신제는 매년 9월 그믐밤 자정에 행하여지는데 지극히 조용한 가운데 엄숙하게 행하여진다. 차려진 제물은 산신제가 끝난 뒤에야 음식을 익혀 마을 사람끼리 나누어 먹고 즐기게 되는데 이미 밤이 깊었기 때문에 이튿날에야 마을 각집에 골고루 나누어 봉송된다. 한편, 산신제에 소용되는 모든 예산은 마을 공동 추렴으로 계산되는데 소값을 포함하는 금액이 과다하여 정초의 모금, 두레 모금 등 각종 기금과 회사금으로 충당했고 나머지는 마을회의를 열어 주민 각기 고루 배분하였다. 이 충당과정에서의 보상으로 부담금에 따라 쇠고기의 봉송량을 조절하였다.

2) 산신제의 진행

산신제의 진행은 홀기에 따라 제사의 순이 진행되는데 실제상 마을 홀기는 없는 형편으로 같은 향리의 필성켄리동의 홀기나 일반 구전의 것이 함께 혼용된상 싶다. 여기에서는 마을에서 전해오는 홀기형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대현관 제집사 관세홀

(2) 강신례

- 대현관 동문입 단전부복례
- 奉爐 奉香(봉로봉향)
- 대현관 삼향

3) 전작 전사 동문입 작취

- 봉존 봉헌 서문입상복위
- 퇴위
- 삼배

4) 전작, 전사 대청수작

- 봉준 봉헌 상복위
- 정저

5) 산신대축

- 삼배
- 평신

6) 함 문

7) 개 문

8) 퇴 잔

- 퇴위
- 삼배
- 평신

9) 대헌관 제집사 퇴위

이상의 순으로 하여 산신제 자체는 일단 끝을 내게 된다. 그러나 뒤를 이어 동네 각 가정의 퇴홍위길을 비는 부정소지가 올려지는데 옛날에는 당집에서 무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구전되고 있다. 그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다.

“부정소지 올립니다. 필봉산신 칠성님, 오늘저녁 9월 그믐 해동반국 대한민국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 ○○○ 맥내에 마른부정, 진부정, 다 물리치시고 가화태평 무궁번창을 비나이다”

이상과 같은 기원으로 부정소지를 통해 기원이 끝나면 사방(동서남북)에 제물을 나누어 뿌리면서 끝을 맺게 된다. 본 작품에서는 신단 앞에서 직접 비는 형식으로 연출되었다.

4. 특 징

이제까지 발굴되어 재연된 본 작품은 잊혀졌던 민속의 재현과 전통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 실례로써 본 작품이 1989. 9. 10 제 6회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작품으로 출연함을 계기로 금년 10월 29일(음력 9월 그믐날) 자정에 실제 이 마을에서 산 솟소를 잡아 제물을 차린 후에 산신제가 봉행된 바가 있다. 이는 구한말 이후 적어도 50여년 동안 잊혀져 소멸되던 민속의 재발견이며 이를 통하여 다시 생겨난 내삼미 부락민들의 공동체적 주민의식은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마을제(부락제)의 기능은 마을 주민이 합심하여 주민 전체의 행복과 자신의 그것을 일치시킴으로써 소속감과 공동체적 의식을 갖게 하는데 있다. 내삼미 산신제는 유교식의 바탕위에 무속이 혼재 되어 있는데 지역 수호신적 성격이 강한 필봉산제에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감정적 일체감을 경험케하는 요소를 보이고 있다.

선정된 제판에 대한 영험한 자세 및 산신제가 끝난 뒤 주민 모두가 경비를 분담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이루어 본래 부락제가 지니는 단합과 단결기능을 잃지 않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의 가장적인 행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서로의 믿음과 영득을 일깨우고 우리의 맥박속에 면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발굴을 통하여 향토사랑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었던 점과 민속속에 깃든 생활윤리의의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은 향토문화의 재연에 앞서 더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